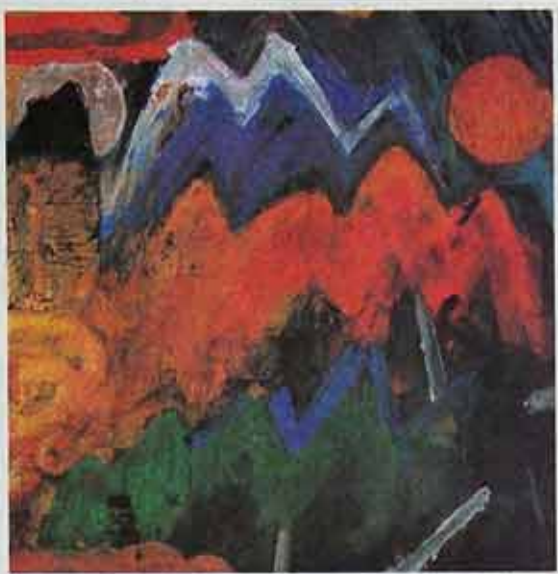


수미산



Y대학교 교회의 종을 받는데 우리나라 봉종의 모양과 똑같이 설계한 후 외장 문양을 기독교적으로 도안하여 제작하는 것을 경험한지 20여년이 지났다.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최근 나는 기독교인의 장례식 한 현장에서 들리는 불교의 영불 소리를 듣고 무척 놀란적이 있다. 그런데 그 영불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불교의 영불 곡조에 기독교식 구원의 내용을 담은 한국적(?) 찬송가였다.

독해처럼 외치던 한 연극인의 모습 속에서 처절함과 함께 엄숙해지는 직업정신을 잘살피고 있었다. 불보살을 항상 그리던 나의 일상에 서 한가닥 의문이 생기기 시작 한지도 꽤 오래된 듯 싶다. 그 의문은 중국 당

보살 눈에 보살 보이고 중생 눈에...

이런 얘기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그것을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 미술과 음악을 심층 활용하고 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정성과 노력의 척도를 짐작해 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라의 부처는 어떻게 생겼고 조선시대 보살은 어떤 모습 이었고, 대한민국 보살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다. 아, 누가 보살님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라. 보살 눈에 보살 보이고 중생 눈에 중생만 보이나 보다.

경주 남산의 무너져 흩어진 탑 돌들, 그곳 어느 부분에 조각 되었던 안상의 넉넉함 속에서, 어느 노스님의 뒷머리 앞에 정성드려 가꾸어진 수선화를 보고 삶과 고즈넉한 여운을 느낄때 나는 불교미술가로서 행복하다.

그림을 그려려고 하지 말고 표현하려고 하자. 문수보살의 지혜와 열성으로, 관음보살의 자비와 냉정한 눈을 통하여, 현생은 언제 끝이나며 명부는 어디에 있으며 수미산은 어디에 있는가, 현생과 명부가 따로없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수미산이 아닐까?

며칠전 연극인 무세종씨 공연을 관람했다. 실소리가 하나 걸리지 않은 일품으로 유리상자 위에 누워 허공을 향해

순연철 (동국대 미술과 교수)

뒷산 울창한 숲에서 ③ (끝)



부처님 법은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미도로 충격이었다. 아나 내 오랜 수행이 일시에 무너지는 참담함이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 특목 이해되지 않았던 스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주인공' 내가 진정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내 앞에 닥쳐온 현실이 주인공을 찾을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는 남편은 자신의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감추지 버리지 않고 너무나도 의연하고 평온한 얼굴로 생을 정리하고 있었다. 머지않아 색상을 벗겨 질 사기에 스님을 만나게 될 남편, 정법을 배우고 익혀 생사가 불이 아님을 깨닫고 자각히 평온한 얼굴을 한 남편을 보니 엄숙하기까지 했다.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하릴 말씀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호젓한 곳에 홀로 남겨놓고 가는 당신 생각은 조금도 걸림이 없소. 다만 내 한 말이 부처님 전에 들어갔느냐만 한 말이 혼자방을 못 넣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왔다. 또 다시 슬마힐 듯한 고요한 순간이 왔다. "이제 부처님 경으로 편안히 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아니야, 자

면으로!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라고 외치며 숨을 거두었다. 남편은 끝까지 내게 올바른 법을 불소! 실천으로 심어주고 그렇게 내 길을 떠났다.

이제부터 나는 홀로 일어서야 했다. 길잡이였던 그는 반려지로서, 스승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떠난 것이다. 남편은 가고 산속 외딴집에 홀로 남아 여생을 어떻게 마감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

물면 뜰 앞 호수 쪽에서 남편이 상현성을 다가오는 환영을 보며 의로움과 공포심에 떨었다. 나는 그때마다 지극히 눈을 감고 정좌를 하며 지난날 '경'을 읽기만 해온 수행이 아무런 힘이 못된다.는 것과, 남편과 자식,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나 대신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됐다. 오로지 내 문제는 나 자신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을 때 이미 나

는 혼자였다. 이 어려운 혼자만의 길을 극복하는 길은 스님의 법에 의지해 '자성본래불'을 찾기 위해 정진하는 길임을 어렴풋이나마 확신하게 되었다. 결국 진정한 수행은 '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을 찾는 것이었다. 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홀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아라. 공포심을 주는 것은 누구고 공포심을

피는 것은 누구인가를 살피면서 관하라. 내 마음은 자가 발전소와 같아 그곳에서 푸앗이든 필요 한 만큼 발전해 쓰면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라. 잘나잘나 닦쳐온 현실 문제는 무조건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속 깊이 새겨 다지고 또 다지며 몸나는 대로 여러 분들에게 물고 또 물어 '외경'을 물고 그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정신을 쌓아갔다. 책을 놓고 한 생각 돌리니 이해는 먼저 간 남편이 보여도 나와 같이 아닌 까닭에 두려움이 없어졌고 오히려 남편의 제위가 늘 내곁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이제 안경을 찾고 앞산 여생을 바꾸리해 가며 만생만물이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다. 뒷산의 울창한 나무와 숲, 찰떡과 과 아카시아꽃의 기운있는 향기, 앞뜰에서 그 웅장한 생명력을 과 시하는 주목의 활짝 새싹들, 화려함을 자랑하는 작아, 풍위있는 난초꽃, 고상한 케이지꽃, 풍성한 풍도화를 보며 눈부신 생명력의 도량을 느낀다. 그 생명의 내가 하나임을 느끼는 순간, 그 힘이 나에게 전해져 몸을 깨워준다.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환희감이 난다.

이 모든 일상, 이 모든 기쁨을 알게 해 주신 내 남편과 스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빅문수행 (천안 속성산 천원생각사)

나는 홀로 일어서야 했다. 만생만물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순간 생명력이 내게 전해져 오면서 환희심이 내안에서 일었다.

각하니 너무 막막했다.

남편의 영전에 향을 사르고 홀로 앉아 의로움을 닦아 보았지만 마음의 안정은 커녕 뒷간에 울창한 상수리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철쭉같은 어름속에 퍼붓는 소나비 소리와 비바람에 흔들거리는 장문소리가 나를 힘들고 두렵게 만들었다.

특히 한밤중 연탄을 갈기 위해 빛문을 나서면 뒷산에서 푸드득 산짐승들 놀래 뛰는 소리며 우뚝 서있는 상수리 나무가 검은 옷을 입은 큰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 보여 머리맡이 푸펫푸펫 서기까지 했다. 삭막이 거울과 저녁노을이 물



A master ministers to his servants and employees as the nadir in five ways, by assigning them work according to their capacity and strength, by supplying them with food and wages, by tending them in sickness, by sharing with them unusual delicacies, and by giving them leave and gifts at suitable times. 주인은 하인과 고용인을 다섯가지

지 방법으로 저비를 베풀어 준다. 능력과 힘에 맞는 일을 부과함으로써, 음식과 급여를 줌으로써, 아플 때 보살펴 주고 세심한 배려를 해 줌으로써, 적당한 때에 휴가와 선물을 줌으로써.

In these ways ministered to by their master, servants and employees love their master in five ways. They wake up before him. They go to bed after him.

They take what is given to them. They do their work well. They speak well of him and give him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생경 13 a good reputation. 주인에게 이렇게 봉사받은 하인과 고용인은 다섯가지 방법으로

주인을 사랑한다. 그들은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고 그들은 주인보다 늦게 잠자리에 든다. 그들은 주는 것만 취한다. 그들은 자기 일을 잘한다. 그들은 그를 칭찬하고 그의 경관을 존경한다.

A member of a family should minister to recluses and brahmins as the zenith in five ways, by affectionate acts, by affectionate words, by affectionate

thoughts, by keeping open house for them, by supplying them with their worldly needs.

제가자는 수도자나 브라만에게 다섯가지 방법으로 공경하며 봉사해야 한다. 사람이 담긴 행동으로써, 따뜻한 말로써, 애정이 넘치는 생각으로써, 그들을 위해 집을 개방함으로써, 그들이 말로써 요구하는 것을 줌으로써. (박미영 기자)

깨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범어집. 목숨을 건 십여 년의 치열한 구도행장.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이 대행스님께서는 '법' 속에 '장경' 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살이요, 삶은 곧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기획·편집: 한마음선원. 제작·보급: 도스출판역시업. ☎ 02)737-0695

영탑 공원 준공식 및 대행 스님 제주 대법회. 초대합니다. 육신을 섬기며 사는 사람을 중생이라 하고, 마음 법에 의해 사는 사람을 부처라 한다. 자성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금번 참다운 초심으로 조상님을 바르게 모실 수 있는 영탑 공원을 조성하여 감사한 마음을 회향코자 대행스님의 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돌이 아니며, 조상님들의 마음과도 돌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될 더욱 뜻깊은 법연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원장·혜표·신도회장 문경행 협장. ■ 일시: 불기 2539년 4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소: 영탑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 주최: 영탑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 전화: (064) 21-4662